



interview

슬픔도 품을 수 있게 된 배우 김민정

아역 배우들의 딜레마는 친근하지만, 그만큼 소비도 크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역 배우가 성인 배우로 우뚝 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성장기는 모든 사람에게 원치 않게 공개되고, 그만큼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성장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역 배우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예가 있다. 연기 생활 25년 차, 중견 배우 못지않은 경력을 지닌 여배우 김민정이다.

글·사진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언제까지나 발랄하고 명랑할 것만 같던 김민정이 언젠가부터 우울함도 슬픔도 품을 수 있는 여배우로 거듭났다. 2014년 tvN '갑동이'에서 그는 선함과 독함을 오가는 이중적 캐릭터 오마리아 역할을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김민정에게 연기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생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누웠던 촬영장은 편한 공간이다. 그렇게 10대가 지나고, 20대도 흘렀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

사실 김민정을 처음 본 건 꽤 오래됐다. 2005년 드라마 ‘패션 70’s’였으니 말이다. 그때 그는 짧은 커트 머리에 정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졌었다. 하지만 서늘했다. 알게 모르게 드라마 속 역할의 영향을 받았던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말 예쁜데 서늘해서 인형 같았던 모습이다.

기자의 회상에 김민정은 “그때는 그랬을 수 있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쉬움도 크다고 한다. “왜 그러지 않았나. 20대란 나이는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나이 아니겠나. 그때 무엇이든지 다 해봤어도 되는데, 난 그렇지 못했다. 그때 내 정신 세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또래보다 성숙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늦게 시작한 언니, 오빠들이었다. 거기서 나오는 간극이 컸다. 그때는 좀 외롭기도 했던 거 같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됐다. 누군가 떠나가도 가족은 늘 옆에 머물지 않나. 미우나 고우나 항상 내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었나 보다.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쁜 일 속에서 늘 뒤를 돌아보면 가족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가공적이지 않고 우아한 삶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김민정의 계획이 궁금했다. “나도 만들고 싶다. 항상 어려서부터 35살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 나이를 향해 가고 있다. 단순히 예쁜 나이에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그렇다고 조바심이 들진 않는다.”

여배우들은 마흔이 넘어도 잘 늙지도 않는다는 말에 그는 “그게 여배우의 특권 일수도.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작품을 하면 알게 모르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며 얼마 전 한 행사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꺼내놓았다.

“내가 생각하는 롤모델인 김희애 선배님을 며칠 전 만났다. 교황님의 한국방문을 축하하기 위한 천주교 모임에 오셨는데, 그날 처음 인사 드렸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연기적인 커리어나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가공적이지



않고, 우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아, 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늙고 싶다’란 생각이 들었다.”

성장에는 높음만이 아닌 넓음도 있다

이제 작품도 마치고, 차기작을 시작하기 전에 숨 고르기 시간을 갖지 않을까. 김민정은 산으로 갈 생각을 밝혔다.

“대부분 연예인이 작품이 끝나고 해외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 국내에서 마음 편하게 이목을 피하면서 쉬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해외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도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곳에서 쉴 수는 없을까. 사실 산을 좋아하기도 한다. 산에 다니기 시작하니, 활력도 생기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더라. 쌓아뒀던 고민이나 스트레스도 풀리고, 한국에 정말 좋은 산들이 많더라.”

추천지를 물었다. 그는 “오대산도 정말 좋았고, 소백산도 좋았는데, 이진 말 그대로 취향이지 않나. 산을 좋아하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많은 분이 국내 산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쩐지 산을 좋아한다는 김민정을 보면서 위로 같수록 세상이 넓게 보이는 이치가 떠올랐다. 그녀의 성장에는 높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넓음도 있었나 보다. 아역 배우 출신의 좋은 습관이 함께했던 덕이다. ㉠

TIP 김민정 피부 관리법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민정.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세안법을 공개했다.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 클렌징폼을 덜어 손가락 세 마디만 이용해 얼굴을 가볍게 터치하듯 세안해주는 것. 이후 깨끗한 물로 헹구어내는데 턱 밑은 손등으로 파배기를 그리듯 씻어내면 목에 남아 있는 잔여물은 물론 V라인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